

조선어의 우수성에 대한 리해

심정송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수한 민족어를 가지고있는것을 크나큰 자랑으로 여겨야 하며 그 우수성을 언어생활을 통하여 더욱 빛내여나가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31페이지)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다.

조선어는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언어가운데서 우수한 언어로 되고있다.

조선어의 우수성은 무엇보다먼저 어휘와 표현이 풍부한것이다.

어휘와 표현의 풍부성은 언어의 우수성을 재는 척도의 하나이며 우수한 언어일수록 어휘와 표현이 풍부하다. 조선어는 어휘와 표현이 대단히 풍부하여 사전에 올린 전형적이고 표준적이며 기초적인 어휘만 하여도 35만개가 훨씬 넘는다.

조선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어휘와 표현이 대단히 풍부하다.

조선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어휘와 표현만도 800여개가 넘으며 어린이와 늙은이, 남자와 녀자의 웃음, 밝고 어두우며 세고 약한 웃음, 소리가 높고 낮은 웃음, 칭찬하거나 비웃으며 흉내내는 웃음 등 그 종류도 많다.

웃음과 관련하여서는 《하하, 허허, 호호, 흐흐, 히히, 해해, 헤헤, 와하하, 으흐흐, 어허허》 등과 《방글방글, 병글병글, 해벌쭈, 해물해물, 히물히물, 흐물흐물, 썩물썩물, 씨물씨물》 등의 많은 어휘들이 있는데 그 웃음의 소리와 모양, 형태에 따라 세분화할수 있다.

조선어에는 색깔을 나타내는 어휘도 매우 풍부하다.

그리하여 조선어로는 색깔의 미세한 차이까지 잘 나타낼수 있다.

형용사 《검다》와 관련하여서만도 순한소리 《ㄱ》와 어두운모음 《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계통의 《거멓다, 검디검다, 거밋거밋하다, 거밋하다, 거무노릿하다, 거무데데하다, 거무멧하다, 거무룩하다, 거무스름하다, 거무레하다, 거무속속하다, 거무송하다, 거무스레하다, 거무속하다, 거무접접하다, 거무죽죽하다, 거무직직하다, 거무촉촉하다, 거무충충하다, 거무칙칙하다, 거무퉁하다, 거무트름하다, 거무트레하다, 거무틱틱하다, 거무틱하다, 거무테테하다, 거무튀튀하다, 거무끄름하다, 거못하다, 거못거못하다》 등의 어휘들이 있는가 하면 순한소리 《ㄱ》와 밝은모음 《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계통의 《가맏다, 가무퇴퇴하다, 가무칙칙하다, 가무트름하다, 가무죽죽하다, 가무잡잡하다, 가무스레하다, 가무스름하다, 가무맹맹하다, 가무속속하다, 가무레하다》 등의 어휘들이 있다. 그리고 된소리 《ㄷ》와 어두운모음 《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계통의 《꺼멓다, 꺼무죽죽하다, 꺼무스름하다, 꺼무직직하다, 꺼무촉촉하다, 꺼무틱틱하다, 꺼무끄름하다, 꺼못하다, 꺼못꺼못하다》 등의 어휘들이 있는가 하면 된소리 《ㄷ》와 밝은모음 《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계통의 《까무대대하다, 까무맹맹하다, 까무레하다, 까무스름하다, 까못하다, 까못까못하다, 까무퇴퇴하다, 까무트름하다, 까무칙칙하다, 까무충충하다, 까무죽죽하다, 까무잡잡하다, 까무스레하다, 까무속속하다, 까무촉촉하다》 등의 어휘들이 있다.

뿐만아니라 《까맣다》나 《꺼멩다》의 앞에 《새-》나 《시-》가 붙어서 《새까맣다, 시꺼멩다》라는 어휘들도 만들수 있다. 이와 같이 검은 빛같이 연한것과 진한것, 색깔이 고르롭게 된것과 그렇지 못한것, 윤기도는것과 그렇지 못한것, 보다 밝은것과 어두운것 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많은 어휘들을 가지고있다.

조선어에는 동사 《만들다》와 관련된 어휘들도 매우 다양하다.

음식을 만들 때 무슨 음식을 만드는데에 따라 《밥을 짓다, 죽을 쑤다, 떡을 치다, 국수를 누르다, 지짐을 지지다, 두부를 앳다, 장을 담그다, 김치를 담그다.》등 여러가지로 표현한다.

조선어에는 성구, 속담들도 매우 풍부하다.

실례로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라, 첫술에 배부를가, 돌 꿰는 화살은 없어도 돌 파는 락수는 있다, 얇은 내도 깊게 건너라, 열번 재고 가위질은 한번 하라, 물에 빠져도 정신만은 잃지 말라, 새도 가지를 가려서 앳는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 마음 잘 먹으면 북두칠성이 굽어본다, 입은 비뚤어도 말은 바른대로 하라, 곡식이삭은 여물수록 고개를 숙인다,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지위가 높을수록 마음을 낮추 먹어라, 개미새끼하나 얼씬 못한다, 물부어 썰 틈 없다, 방망이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끼다, 개미는 작아도 탑을 쌓는다, 돌쩌귀에는 녹이 쓸지 않는다, 부지런한 농사군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 사람은 얼굴이 고운것이 아니라 일이 곱다, 계는 감추듯, 번개불에 콩 닦아 먹겠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산에 가야 범을 잡는다, 소뿔은 단김에 빠라,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글가, 남의 속에 있는 글도 배운다,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 감나무밑에서 열매떨어지기를 기다린다, 게으른 놈 밭고랑 세듯, 차비삼년에 제떡이 신다, 강 건너 불보듯, 소 닭 보듯, 고운 사람 미운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데 없다, 나무는 보는데 숲은 못 본다, 우물안의 개구리, 간에 가불고 염통에 가불는다, 낮가죽이 발바닥만큼 두껍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 가랑잎으로 눈가리고 야옹한다.》등을 들수 있다.

조선어에는 참을성, 인내성, 강의성, 신중성, 침착성, 진실성, 정직성, 겸손성, 치밀성, 근면성, 민첩성, 대담성, 결단성, 확신성, 게으름, 무관심, 편견, 파렴치성, 어리석음 등 사람의 성격과 성품, 생활의 교훈과 진리, 인생의 리치 등과 관련한 깊은 뜻을 생동하게 형상한 성구, 속담들이 대단히 풍부하다.

조선어의 우수성은 다음으로 표현력이 대단히 높은것이다.

조선어가 표현력이 높은것은 표현수단과 수법이 풍부하기때문이다.

조선어에는 표현력을 높일수 있게 하는 많은 언어적요소들이 있으며 직유법, 은유법, 야유법, 대구법, 대조법, 의인법 등 정연한 표현수법들이 있다.

직유법을 사용한 표현들인 《해빛처럼 밝은 얼굴, 함박꽃같은 얼굴, 서리맞은 풀잎처럼 패기없는 얼굴, 종이장같이 해쓱한 얼굴, 먹구름처럼 흐려진 얼굴》, 대구법을 사용한 표현들인 《불러 정답고 안기여 자애로운 어머니당의 품, 우리 당의 모든 사색은 언제나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안겨주려는 숭고한 뜻으로 빛나고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은 후대들에게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다운것을 마련해주려는 끝없는 사랑으로 넘친다.》등은 객관적인 현실을 아주 섬세하고 대단히 정확하게 그리고 보다 감동적으로 표현할수 있게 하여준다.

조선어의 우수성은 다음으로 문법이 아주 짜여져있고 말소리가 아름다우며 발음이 풍

부한것이다.

조선어는 토가 치밀하게 발달되고 짜여져있다.

조선어의 토는 비교적 자주 쓰이는것만 하여도 무려 500여개가 넘는다.

이러한 토들은 단어들사이의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는데 적극 리용되고있다.

조선어는 말소리가 매우 아름답고 유순하며 류창하다.

모음과 자음가운데서 모음은 자음에 비하여 절반이상을 차지할뿐아니라 그 사용은 거의 2.5배에 달한다. 자음중에서도 올림이 강한 자음이 전체 자음수의 21%이지만 그 사용 정도는 2배이상이다. 그러므로 말소리흐름이 전반적으로 올림이 크고 류창하게 들린다.

소리마디는 열린것과 닫힌것으로 되어있으며 그것들은 서로 이어져 발음되기도 하고 끊어서 발음되기도 한다. 소리마디는 모음으로만 된것, 모음과 자음으로 된것, 자음과 모음으로 된것 등 무려 3 000여개가 훨씬 넘는다.

조선어의 우수성은 다음으로 문자가 특별히 과학적인것이다.

조선사람들은 15세기에 오랜 기간의 문자생활경험과 발전한 문화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조선민족과 세계의 문화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훈민정음》을 놓고 사람들은 천하의 말소리를 다 적을수 있으며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 개가 짖는 소리도 모두 적을수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문자로써는 세계의 어떤 나라 언어의 말소리든지 거의 마음대로 적을수 있다.

《훈민정음》은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훌륭한 자모문자이다.

《훈민정음》은 발음기관의 동작과 모양을 본따서 과학적으로 만든것도 독특하지만 기본문자에 획을 더하여 문자를 만든것으로 하여 대단히 체계적이고 훌륭하다.

뿐만아니라 《훈민정음》은 누구나 배우기 쉽고 보기가 편리한 문자이다.

《훈민정음》은 문자수가 적고 획이 간단하며 사용법이 편리하여 쉽게 배우고 익힐수 있다. 그리고 매개 글자형태가 리치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문자의 모양이 명확히 구분되어있다.

조선어의 우수성은 다음으로 유구성과 계통의 단일성에서 찾아볼수 있다.

해당 언어가 우수한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을 가르는 척도중의 하나는 언어가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이며 역사적발전과정에 이러저러한 언어와 섞이거나 분리되거나 하지 않고 자기의 확고한 계통을 유지하여왔는가 아니면 그 계통을 상실하였는가 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해당 언어가 오랜 옛날부터 하나의 뿌리에서 생겨나 하나의 줄기로 뻗어내려온 단일한 언어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그 언어의 우수성을 갈라볼수 있다.

조선민족은 아득히 먼 옛날부터 인류발상지의 하나인 조선땅에서 발생하여 하나의 피줄을 잇고 하나의 말과 글자를 쓰면서 살아온 유구하고 단일한 민족이다.

주체83(1994)년에 개건확장된 단군릉은 조선민족이 다름아닌 단군의 후예이며 단군 이래 5천여년간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의 문화를 창조하면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어는 유구성에 있어서뿐만아니라 단일성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민족어이다.

언어의 단일성에 관한 문제는 언어의 우수성에 관한 문제, 민족과 민족어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피줄과 함께 언어가 같아야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언어의 단일성을 떠나서 하나의 민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고 하나의 민족으로 존재할수도 발전할수도 없기때문이다.

조선어가 단일하다는것은 바로 조선어가 언어들사이의 교차현상에 의하여 이러저러한 언어요소가 뒤섞여 생긴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줄기에서 뻗어내려오면서 발전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조선어의 단일성을 론증하는 중요한 언어자료로는 삼국시기 사람, 벼슬, 고장이름에 쓰인 리두자료들이 있다. 삼국시기의 언어자료를 보면 단어차례, 문법적관계를 나타내는 토의 쓰임 등에서 단일어적인 공통성이 잘 나타난다. 삼국시기의 언어자료들은 조선어가 하나의 령토에서 력사적인 단일성을 이루고있었다는 증거로 된다.

조선어의 계통의 단일성은 조선어가 조선민족의 형성과 함께 발생하고 그 어떤 언어와도 교차현상이 없었다는것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민족어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것은 그것이 생겨날 때 하나의 언어계통의 뿌리에서 생겨났는가 아니면 여러 언어의 교차현상에 의하여 생겨났는가 하는 문제이다. 민족어가 다른 언어와의 교차현상에 의하여 생겨났다면 그 언어는 발생초기부터 단일성이 보장되지 못한것으로 되며 독자적이라고 말할수 없다.

조선어는 다른 민족어에 동화되거나 통합됨이 없이 조선민족의 력사와 더불어 자기의 고유한 민족성을 고수하면서 발전하여왔고 말소리체계로부터 문법구조에 이르기까지 그 단일성을 확고히 지키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처럼 조선어는 언어의 구조적요소들의 발달정도에 있어서나 문자의 과학성과 체계성에 있어서 그리고 그 발생발전의 견지에서 언어발전의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수한 민족어로서 빛을 뿌리고있다.

조선어의 우수성을 또 다른 측면에서 찾아볼수도 있을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조선어의 우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지고 조선어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그 연구성과를 언어실천에 적극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필자는 중국통신박사원생임)